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인도네시아 물류성과지수(LPI) 순위 향상



물류정책·산업동향

1. 미얀마, 띠라와(Thilawa)지역 항만개발 프로젝트 계획 순항
2.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 꾸준한 성장 예상
3. 일본발 중국 수출 컨테이너화물 9개월 만에 증가 추세
4. 로봇·드론 시장, 연간 19.6% 성장 예상

명사 스피치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 수출입 물동량 및 동북 3성 수송수요 증가로 나진항 등 북한 동해안 항만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북한 항만과 부산항의 피터 운송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은 한·일, 한·중, 동남아 및 미주와 구주항로 등 전 세계 530여개의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북방 물류의 부산항 환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2018. 7. 31. / 코리아슈핑가제트 인터뷰 기사)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인도네시아 물류성과지수(LPI) 순위 향상

아세안 국가 LPI 순위(2014-2018)

국가	2014	2016	2018
싱가포르	5	5	7
말레이시아	25	32	41
태국	35	45	32
인도네시아	57	63	46
베트남	48	64	39
필리핀	53	71	60
캄보디아	83	73	98

자료 :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LPI 지표별 실적

국가	2014	2016	2018
세관(Customs)	55	69	62
인프라(Infrastructure)	56	73	54
국제 운송(International shipments)	74	71	42
물류 역량(Logistics competence)	41	55	44
추적 능력(Tracking and Tracing)	58	51	39
적시성(Timeliness)	50	61	41

자료 : 세계은행

-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8년도 물류성과지수(LP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순위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의 2016년 순위는 63위에서 2018년에는 무려 46위까지 상승함
- 167개국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물류성과지수 조사는 6가지¹⁾ 지표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이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개발 추진에 힘입어 항만의 체류 시간 개선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볼 수 있음
-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물류성과지수 순위와 점수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의 다른 저소득층 국가와 비교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임
 -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물류 연결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는 결국 인도네시아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임

■ 참고자료 : <https://www.indonesia-investments.com>, 2018.7.25.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1) 세관(Customs), 인프라(Infrastructure), 국제 운송(International shipments), 물류 역량(Logistics competence), 추적 능력(Tracking and Tracing), 적시성(Timeliness).



물류정책·산업동향

미얀마, 땔라와(Thilawa)지역 항만개발 프로젝트 계획 순항

- 최근 미얀마 정부는 급속히 증가하는 양곤항 항만물동량 처리에 대응하고자 양곤항 땔라와지역 37개 구역에 대한 항만 및 터미널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미얀마는 9개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곤항에서 미얀마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90%가 처리되어 최근 항만 내 체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땔라와 지역 항만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향후 땔라와 특별경제구역(SEZ)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급속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땔라와 지역 항만의 부두개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미얀마 항만청은 땔라와 특별경제구역의 완전 개장 및 최근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존 컨테이너 및 수리조선 부두의 기능재정립을 통해 다목적 부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할 예정임
 - 미얀마 정부는 땔라와 지역 항만 개발을 통해 현재 연간 약 2천만 톤 수준의 물동량을 장기적으로 약 1억 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땔라와 특별경제구역은 땔라와 항만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 1단계 A구역 개발 및 임대(공장, 주거·상업 등)는 98%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B구역은 2018년 말 완공될 예정임. 2015년 완공된 A구역에는 현재 국내기업을 포함한 16개국 78개 기업이 입주하여 24개 공장이 운영 중에 있음
 - 땔라와 지역 항만 대부분의 선석은 약 800m의 충분한 배후 폭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부두와 연계해 야적장 등 일반화물을 집산할 수 있는 창고 또는 물류센터 등의 시설개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미얀마 땔라와(Thilawa) 항만개발 프로젝트 현황도

출처: <http://www.mpa.gov.mm/thilawa-area>■ 참고자료 : [http://www.elevenmyanmar.com/local/13843\(2018.07.21. 검색\)](http://www.elevenmyanmar.com/local/13843(2018.07.21. 검색))

이주원 연구원

051-797-4667, peterlee@kmi.re.kr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 꾸준한 성장 예상

- 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소셜커머스의 확대로 인해 전년대비 8.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태국 정부가 제시한 “스마트 국가”로의 비전과 일치함
 - 태국 인구(6,911만 명) 중 약 5,700만 명이 일반 인터넷을, 특히 약 5,550만 명은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인구의 대부분이 이미 온라인 상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상품 구매 경험이 있음
 - 현재 약 1,210만 명이 온라인 쇼핑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80만 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인구의 24.5%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
 - Statista에 따르면 현재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연간 8,000바트(약 27만원) 이상을 전자상거래에 소비하며, 2021년에는 12,000바트(약 4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에서 추구하는 다양성을 반영해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태국의 전자상거래가 혼합된 형태임
 - Amazon, eBay, Agoda와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태국의 C2C 시장 및 온라인 커뮤니티인 WeLoveShopping과 Pantipmarket는 현지 취향에 맞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Thailand 4.0의 주요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무(無)현금 사회의 구현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태국 전자 지불 무역협회는 현재 90% 수준인 현금 거래가 향후 2년 내에 5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Thailand 4.0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2018년 초 태국의 전자 지불 시스템(PromptPay)에 이미 1,400만 건의 거래가 등록되었으나,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아 구매자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함
 - 현재 기업의 81%가 ATM 송금과 같은 은행 송금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46%는 편의점의 창구 판매와 같은 오프라인 판매 지점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현금 거래가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거래 수단 중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든 전자상거래의 80%가 현금 거래로 이루어짐
-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으로 전자 지불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태국의 온라인 및 모바일 거래 시장은 6년 이내에 성숙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태국 정부의 전자 지불 시스템 구축과 모바일 광대역 보급 확대로 2021년에는 인구의 85% 이상이 모바일을 이용해 온라인에 접속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 국가 전자 지불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장과 소비자들이 현금에서 벗어나 전자 지불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s://www.opengovasia.com/>, 2018.7.26.

일본발 중국 수출 컨테이너화물 9개월 만에 증가 추세

- 5월의 일중항로 컨테이너 물동량은 일본발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6% 증가한 99만 8천 톤으로 9개월 만에 증가(일본해사센터가 무역통계를 토대로 정리)
 - 주력 화물은 목재 펄프, 종이 및 판지 등(HS코드 47~49)으로서 34만 1천 톤(점유율 34%, 전년동월 대비 22% 증가)
 - 그동안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일본산 폐지 수출이 부활
 - 2위는 플라스틱 및 동 제품(HS 코드 39)으로 13만 9천 톤(점유율 14%)으로 중량 기준으로는 전년동월 대비 26% 감소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600억 엔으로 동 11% 증가
- 2017년말 중국 정부는 환경부하가 큰 폐지 및 폐플라스틱 류 등 재생 자원 24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했으나, 중국 내수 확대에 의한 통신판매 상품 포장용 골판지의 수요 급증
 - 그동안 골판지의 원료로서 수입 폐지를 이용해 왔으나, 규제의 영향으로 작년 말부터 일본 및 북미 지역 발 폐지 수입이 크게 감소
 - 일본해사센터 통계에 의하면 목재 펄프, 종이 및 판지 등의 감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나, 대형 수입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발행 재개로 질이 좋은 일본발 폐지 수입이 증가됨
 - 또한 중국 현지의 폐지 조달 곤란에 기인한 골판지 제품 수입 증가
- 중국발 일본 수입 화물은 208만 2천 톤으로 3개월 만에 증가추세(전년동월 대비 7% 증가)
 - 품목별 수송량 상위 3개 품목은 기계장치가 35만 9천 톤(전년동월 대비 10% 증가), 야채·곡물, 과일, 채유용 씨앗, 차 등이 15만 5천 톤(동 3% 증가), 식료품, 음료, 알코올, 식초 등이 13만 6천 톤(동 9% 증가)의 순으로 모두 증가세
 - 1~5월 누적 수송량은 일본 수출 437만 8천 톤(전년동기 대비 12% 감소), 일본 수입 928만 2천 톤(동 1% 증가)

■ 참고자료 : 일본해사신문 전자판 MARINAVI <http://www.marinavi.com/>, 2018.7.31.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



로봇·드론 시장, 연간 19.6% 성장 예상

- 기업들은 로봇과 드론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총 매출은 95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분석회사인 IDC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시장들은 연평균 19.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매출이 2022년까지 2,01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각 범주별 지출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로봇 솔루션에 대한 지출은 2018년에 총 86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산업용 로봇 솔루션은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s)²⁾과 소비자 로봇(consumer robots)³⁾에 이어 로봇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임
 - 2018년 전 세계 드론 지출은 93억 달러가 될 것이며, 5년간 전체시장의 연평균 32.1% 성장세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함
- 이는 드론 및 로봇 각 산업의 유스케이스(use case)에 따라 주도될 것임
 - 예측 기간 동안 로봇 지출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일 유스케이스는 벌크시장(53.4%), 선반재고(45.6%) 및 고객 서비스(42%)임
 - 드론의 경우, 살충제 및 비료 살포(109.4% GACR), 응급서비스(86.4% GACR) 및 정밀 농업/농작물 정찰(86.1% GACR)사용분야가 예측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 할 것임

메르세데스 벤츠의 밴&드론 결합 운송



자료 : <https://www.mhlnews.com/technology-automation/robotics-and-drone-market-growing-196-annually>

■ 참고자료 : Mercedes-Benz.2018.08.01.

이찬빈 연구원

051-797-4690, cblee7645@kmi.re.kr

2)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s): 산업 분야의 로봇 외 가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
3) 소비자 로봇(consumer robots): 청소로봇, 로봇 도우미 등 가족 동반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로봇